

2017. 09. 15.(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9월 14일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I·SEOUL·U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국장	정소익	2096-0108 010-8578-0435
홍보 담당자	김나연	2096-0156 010-2035-1447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8쪽

## 세운상가창신동 구도심에서 만나는 생산도시 서울의 미래

- 사물의 구조, 신제조업 워크숍, 프로젝트 서울어패럴... ‘생산도시’ 프로젝트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9.2~11.5) 돈의문박물관마을, DDP 등

도시가 당면한 중요한 덕목으로 ‘생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도심 제조업 현장의 다양한 현상을 재조명하고 도시 생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해석하는 현장 프로젝트 〈생산도시〉가 진행된다.

- 오는 11월 5일까지 열리는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약칭 서울비엔날레)의 현장 프로젝트인 〈생산도시〉는 의류, 금속, 인쇄, 기계 등 도심 제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프로젝트이다.
- 주요 프로그램은 〈사물의 구조〉, 〈신제조업 워크숍〉, 〈프로젝트 서울어패럴〉로 서울의 구도심인 창신동,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 생산 현장에서 다양한 전시와 워크숍이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 도심제조업의 잠재력과 미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의 구조〉 전시는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을 산업별 지역별 관계망 안에서 그 가치 체계를 탐색하는 프로젝트 전시다. 현재의 체계에서 생산성의 새로운 가치를 재

구성해 생산지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과 가능성을 제안한다. 세운상가의 도시재생사업인 ‘다시 세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19일 새롭게 개장하는 보행데크에 위치한 메이커스 큐브와 세운베이스먼트에서 만날 수 있다.

- 주요 전시 중 하나인 ‘아보블로쉬 메이커스페이스 플랫폼’은 아프리카 가나의 전자쓰레기 처리장에서 시작한 사회적 디자인 프로젝트를 보여준다. ‘아보블로쉬 메이커스페이스 플랫폼’은 지역 주민들과 메이커 운동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교육의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가나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관련 사진 자료와 함께 구리 낫쇠, 강철, 알루미늄 조각으로 만든 팔찌, 알루미늄 조각으로 만든 냄비 등 실제로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물품들을 볼 수 있다.
- 이밖에도 생산도시 내에서 엄격한 표준규격의 규제를 받는 나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표준규격의 가능성과 함께 그 생산과정을 살펴보는 <나사 001>, 생산도시 서울 도심에서 이동수단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효율성을 강화한 새로운 이동수단인 ‘셀프 드라이빙 바이크’를 제안하는 <좁은 도시> 등이 전시된다.

□ <신제조업 워크숍>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존 산업의 기술에 신기술을 접목하고 실험하는 워크숍 시리즈다. 인공지능, 로봇틱스, 3D 프린팅,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분야의 과학자, 공학자, 예술가, 기술자들이 함께 참여해 신제조업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신제조업 워크숍은 세운상가 지하의 보일러실을 개조해 만든 ‘세운베이스먼트’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한다.

□ <프로젝트 서울 어패럴>은 서울 창신동 봉제 공장 골목에 위치한 특별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프로젝트 서울 어패럴은 보다 나은 제조업 환경과 단위 공장의 지속 가능한 작동 방식을 탐구해 실제 공간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

재 창신동 봉제 산업의 인적 자원과 도시 조직적 가능성에 집중해 새로운 지역 산업 모델과 이것이 가능한 단위 공장 공간을 구상한다.

- 동대문 일대의 패션 산업 자원과 일련의 생산 프로세스를 지도에 매핑해 의류 생산도시로서의 서울을 조명하는 〈서울 어패럴 안내서〉, 창신동의 숙련된 객공들과 신진 디자이너들의 직접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공장을 변화시킴으로써 창신동의 정체된 봉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선례로서의 단위공장 프로토타입을 제안하는 〈단위공장 프로토타입〉 등이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 생산도시의 공동 총괄 큐레이터인 황지은 교수(서울시립대 건축학부 부교수)는 “도시의 탄생과 직결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생산 기능이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추세다. 특히 서울은 도심 속 아직까지 제조업의 기반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창신동, 세운상가, 을지로 등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번 서울비엔날레 생산도시 현장프로젝트는 비엔날레가 끝난 이후에도 도시의 일부로 계속 남아 생산도시 서울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는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9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50여 개 도시, 120여 개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 서울비엔날레에서는 생산도시 외에도 식량도시, 똑똑한 보행도시 등의 다채로운 현장프로젝트가 진행된다.

- 식량도시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가는 식량 문제를 음식과 식음료, 도시농업 등 친숙한 주제로 체험해보는 프로젝트로 서울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비엔날레 카페, 비엔날레 식당 등이 마련된다.

- 똑똑한 보행도시는 ‘공유도시 서울투어’, ‘뇌파산책’, ‘뮤직시티’ 등 보행과 관련된 실험프로젝트와 참여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한편, 서울비엔날레 기간 동안 DDP 일림터와 돈의문박물관마을에 전시와 휴게공간이 어우러진 <서울리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로 7017’, ‘서울재활용플라자’,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서울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14개 정책을 전시로 만날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존을 통해 직접 원하는 정책을 제안해볼 수 있다.
  - <서울리운지> 리플릿을 소지한 시민을 대상으로 <간송문화전>과 <서울비엔날레> 입장권 할인을 비롯해 DDP A3 아카이브 커피와 디자인장터 식음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 서울비엔날레 프로그램별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비엔날레 홈페이지([www.seoulbiennale.org](http://www.seoulbiennale.org))에서 확인하거나 서울비엔날레 사무국(☎ 02-2096-01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좁은도시 서울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은? 셀프 드라이빙 바이크”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프로젝트의 주 전시장인 동대문, 을지로 등에서는 생산도시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그 중에서도 지게를 지고 가는 행인, 완성품을 전달하는 삼륜차 등 운송 수단은 ‘생산도시’ 서울에서 빠질 수 없는 모습 중 하나다.
- 생산도시 서울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할 때 물품의 무게, 부피, 배달 거리, 속도, 시간은 물론 그 지역의 전통과 관습까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
- 건축연구소 ‘모토엘라스티코’는 이처럼 생산도시에서 중요한 운송수단을 연구하고 생산도시에서 꼭 필요한 새로운 이동수단을 제안하는 프로젝트 ‘좁은도시’를 선보였다.
- 좁은 도시 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한 <셀프 드라이빙 바이크>를 선보이는 모토엘라스티코 시모네 카레나 소장과 마르코 브르노 소장을 만나 생산도시 서울에 꼭 필요한 운송 수단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질문>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좁은도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어떤 프로젝트인가? ‘좁은도시’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답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광장시장 일대는 생산, 산업, 쇼핑, 관광이 독특하게 얽혀있는 구조를 띄고 있다. 특히 광장시장을 비롯한 이번 서울비엔날레의 주요 전시장인 동대문, 을지로 일대의 경우 작은 가게 상점들이 연계가 돼서 프로세스가 운영되는 특이한 구조로 운영된다. 한 지역 일대가 그 자체로 생산 벨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런 특이성을 고려한 운송수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에서 이번 프로젝트인 ‘좁은도시’가 나오게 됐다.

〈질문〉 ‘좁은도시’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됐나?

〈답변〉 우리는 광장시장 일대의 배달기사들이 각자 어떠한 방식으로 운송수단을 개조하고 어떻게 도시를 활용해 이동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배달기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배달의 범위나 평균 적재량과 비용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냈다. 그 후 GPS 추적을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배달원의 하루 동안의 배달경로를 분석했다. 쟁반, 지게, 수레, 자전거, 스쿠터, 오토바이, 삼륜차, 다마스, 야쿠르트 전동카트 등 주요 배달 방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좁은도시 내 이동 수단의 대안으로 〈셀프 드라이빙 바이크〉를 제안하게 됐다.

〈질문〉 새로운 이동수단 〈셀프 드라이빙 바이크〉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운송 수단이라고 들었다. 왜 하필 오토바이인가?

〈답변〉 셀프 드라이빙 바이크는 좁은 도시의 좁은 통로를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동 실험이다. 모두 알다시피 서울 도심에서의 교통량은 엄청나다. 교통량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능적으로 도시를 활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알고 있는 골목, 도로 뿐 아니라 도시 자체의 특성상 생기는 사이 공간, 틈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이동수단 역시 좁은 도시에 맞는 좁은 모양이 필요했다.

오토바이는 모든 도로에 유입이 가능하면서 먼 거리도 이동할 수 있는 적절한 교통수단이다. 여기에 적재량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더해 효율성까지 높였다. 셀프 드라이빙 바이크는 납작한 이동식 수납공간에 바퀴를 다는 것으로 적재량의 수평적 길이는 220cm로 최대화하면서 폭은 반대로 42cm에 불과

한 아주 좁은 치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질문〉 이번 전시에서 빼놓지 말고 봐야할 점이 있다면?

〈답변〉 생산도시 주요 전시장 중 하나인 세운상가에서는 〈셀프 드라이빙 바이크〉가 실제로 오토바이에 장착된 실물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장시장에 있는 모토엘라스티코 사무실에 마련된 특별 전시장에서는 좁은 도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결과 등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연구한 이 지역은 그 자체로 생산도시의 모습을 띄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도심 한 가운데에서 공장이 밀집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은 흔치 않다. 이번 프로젝트 자체가 이처럼 특이한 생산도시로서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생산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요소인 운송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적인 운송수단의 미래가 될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앞으로도 이처럼 생산도시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 \*모토엘라스티코는?

공간연구소로 이탈리아인인 시모네 카레나 소장과 마르코 브르노 소장에 의해 2001년 서울에 세워졌다. 모토엘라스티코는 현재 건축, 인테리어, 전시 및 아트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생산도시> 프로젝트 주요 사진)



① ‘좁은도시’ 프로젝트의 모토엘라스티코. 왼쪽부터 시모네 카레나 소장와 마르코 브르노 소장



① 모토엘라스티코가 제안한 ‘좁은도시’ 프로젝트의 <셀프 드라이빙 바이크>

사진출처: 서울디자인재단